

 산업통상자원부		<h1>보도자료</h1>		http://www.motie.go.kr
2018년 6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 24(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22(금)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		
담당과장 정석진 과장(043-870-5520) 이지혜 과장(043-719-1551)	담당자 기현중 연구관(043-870-5523) 최정윤 연구관(043-719-1594)			

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

- WTO TBT 위원회 계기, 중국 등 8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6.19.~21.)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붙임)

< 국가/분야별 규제해소 현황 >

①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 ①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 ②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 ③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④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할 때 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2019.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②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⑤ 캐나다(퀘벡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TV)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⑥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 ⑦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사가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⑧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③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하였다.

- ⑨ 걸프지역표준화기구(CSO)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의 통합과 우리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 제공을 약속했다.
- ⑩ 우크라이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해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 ⑪ 또한,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협의 결과는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 개선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의 경감이 기대 된다.

- 캐나다의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TV)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대상 제외로 **막혔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집트의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중동국가들의 중복환경규제를 통합하기로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취득 시간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를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의 결과 설명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참고 1 WTO TBT 위원회('18.6월) 계기, 협의 성과(8개국 11건)

□ 규제 개선(9건) / 개선 검토(2건)

국가	규제명	요구사항 (기업애로)	협의결과
캐나다	TV 에너지효율 인증	시장 진입 단계인 4K 초과 TV 제품에 대해 EU 등과 같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규제개선) 퀘벡주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K 초과 TV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콜롬비아	전자제품 에너지 라벨링	'라벨 표기치' 관련 7.4.3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제조자가 표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개선) 제조자가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라벨 표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유권해석) 접수
GSO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규제 적용범위, 라벨표시 가이드, GCC 역내 유사 규제 통합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	(규제개선) UAE와의 규제통합 약속 (정보제공) 라벨표시 세부가이드 제공 약속
이집트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	시험소, 인증신청, 시행기준 명확화 등	(규제개선) 국제공인성적서 인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증신청 가능 등
우크라이나	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적용제외 부품관련 예외 조항 규정 (부속서3) 개정 요청	(시행유예) 한국이 요청한 부속서 3의 일부부품에 대한 규제 적용을 무기한 연기
필리핀	제품안전인증 행정명령 개정아	수입시 검사가 면제되던 필리핀 표준 인증 취득 제품도 선적분마다 추가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비용증가 및 통관 지연 우려	(개선검토) 필리핀 표준청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기기기 등은 통관 시 추가검사를 면제해 달라는 우리나라 요청을 고려하여 규제 개정 검토
케냐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케냐 기준을 만족하는 에어컨이 없다는 점을 고려, 최소기준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폐지·완화 요청	(개선검토) 에너지효율 규제 개정 및 임시 통관허용을 위한 위원회 개최와 한국기업의 위원회 참여 보장 약속
중국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위해가 낮은 상온 보관식품, 가공식품까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시행유예) 시행일을 2019년 10월로 유예
	네트워크 안전법	3자 평가가 아닌 보안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유출되지 않도록 근거조항 마련 요구	(규제개선) 보안심사 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합의
	차량연계 네트워크 보호 가이드라인	플랫폼 서버의중국 내 설치 등 독소조항 철회 요청	(규제개선) 데이터를 중국 내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철회
	전기차, 전기배터리, 전기버스 안전 요건	국외 이해관계자의 표준참여 보장 요청	(규제개선) 표준화위원회 (TC114/SC27)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기현중 연구관(☎043-870-5523), 이보하 연구사(☎043-870-55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